

2003년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 개혁신의교회 예배에 대한 연구

(A study of reformed church worship in korea)

- 예배 내용을 중심으로 -

2003 년 12 월 일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김 광 민

# 한국 개혁신의교회 예배에 대한 연구

(A study of reformed church worship in korea)

- 예배 내용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박종근

이 論文을 목회학 석사학위  
論文으로 提出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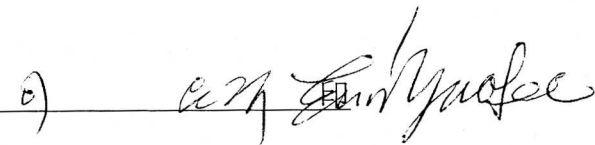
2003년 12월 일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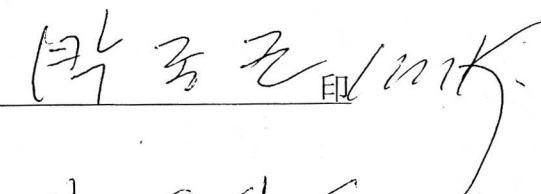
목회학 專攻

김 광 민

김광민의 碩士學位 論文을  
合格으로 判定함.

審査委員長 이 은선 

審査委員 김종민 

審査委員 박종민 

審査委員 이 은선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2003 년 12 월

# 목 차

I. 서론	6
A. 문제 제기	6
B. 연구목적과 방법	8
II. 예배의 성경적 용어 정의와 성경 역사적 고찰	9
A. 예배의 성경적 용어 정의	9
1. 예배의 구약적 용어	9
2. 예배의 신약적 용어	10
B. 예배의 성경 역사적 고찰	12
1. 족장 시대의 예배	13
2. 율법 시대의 예배	13
3. 성전 시대의 예배	14
4. 회당 시대의 예배	15
5. 예수님 시대의 예배	17
6. 사도 시대의 예배	17
7. 초대교회 예배	18
8. 초기 기독교 시대의 예배	19
III. 한국 개혁신주의 교회예배	23
B. 칼빈의 예배 의식	23
1. 칼빈의 예배 의식의 특징	25

C.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27
1. 닉스의 스코틀랜드 개혁운동	27
2. 웨스트민스터 성회	29
3.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구조와 내용	30
D. 청교도의 예배모범	32
IV. 개혁주의 예배의 제요소	36
A. 개혁주의 예배와 설교	36
B. 개혁주의 예배와 고백	37
C. 개혁주의 예배와 헌금	37
D. 개혁주의 예배와 음악	38
E. 개혁주의 예배와 기도	38
F. 개혁주의 예배와 성례전	39
V. 한국 장로교회 예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0
A. 한국 장로교회 예배의 역사	40
B. 문제점	44
1. 지나친 말씀 중심의 예배	44
2. 성례전 예배의 부족	45
3. 제 2의 미 서부 개척지의 예배 등장	47
4. 예배복고 운동에 발 맞추어 나가는 예배행렬	48
5. 영상매체를 통한 예배의 등장	49
C. 개선방안	49
1. 개혁주의 교회의 예배신학 정립	49

2. 지·정·의의 균형잡힌 예배표현 .....	53
3. 축제로서의 예배 .....	54
4. 예배하는 자들의 올바른 예배 교육 .....	55
VI. 한국교회 예배 전망과 내용에 대한 제안 .....	57
VII. 결론 .....	61
참고문헌 .....	64

# I. 서론

## A. 문제제기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A와 B가 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피조물인 우리 인간 모두로부터 영원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 할 인간의 마땅한 본분인 것이다.

오늘날 수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정말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할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왜냐면 많은 예배들이 하나님께 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행하여 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자기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인 신앙의 정성어린 응답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하나님과 예배자와의 대화와 만남이다.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과 성례전에서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구현하며,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기쁨을 경험하며, 갱신되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함양하는 것이다.

예배로 하나님과 참된 만남을 갖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인간 생활중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하고도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신학이 없는 의식과 장식이 도입되었으

며, 경건성을 잃고 감정적인 예배의 모습으로 변해가며,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모습보다는 자기의 만족과 의무적인 의식적 흐름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다. 더욱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보다는 병적치유나 축복을 비는, 아니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샤머니즘적이며, 기복적인 예배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더욱이 찬양이 활성화되면서 자기 도취적이며, 문화참여적이 되어가고 자기 감정의 발산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 성령님이 배제된 예배와 복음적 내용이 없는 축복의 메시지 선포의 내용으로 전락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실로 교회의 의무와 특권 가운데 하나는 참다운 예배의 행위와 그것을 온전히 보전하는 일일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올바른 사역을 위해 새로운 교회 예배의 갱신과 반성이 필요할 것이며, 다시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경적 예배의 모습으로 환원되어지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들은 좀더 나은 예배를 위해 예배형식을 다변화하여 여러 가지의 예배 형태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이다. 이러한 예배형식의 변화가 신학적이며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그리고 충분한 검증도 없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위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예배가 변화해야 되고,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학적인, 성경적인 변화된 예배를 추구해야 될 것이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 B. 연구목적과 방법

본 글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 받으실만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개혁주의 신학정신에 입각한, 우리가 앞으로 취해야 할 예배의 모범과 형식을 찾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현재 개혁교회 내에서 드러지고 있는 예배의 내용과 형태를 고찰하여, 현재 한국개혁교회 예배의 문제점을 살피고 보다 더 개혁주의 정신에 맞는 예배의 모범을 제안하려고 한다.

먼저 예배의 성경적인 언어의 정의를 살핀 다음, 성경 속에서 드러지는 있는 예배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살펴본 다음에, 현재 개혁주의 정신을 잇고 있는 여러 시대에 걸친 예배 내용과 모범을 살펴 보려고 한다.

우리 또한 그 개혁주의 노선에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지하고 있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배 내용의 주된 형태들은 이미 한국 초대장로교회의 예배 내용과 별 다른 내용이 없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 예배 내용 또한 개혁주의 정신에 잘 드러맞는 예배내용이 아니라는 것에 또한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때문에 현재 우리의 예배 내용과 개혁주의 입장에 있는 여러 시대의 예배 내용을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취해할 예배의 참된 내용과 예전을 만들어 보는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덧붙여 21세기에 들어서 예배의 유형이 어떻게 흐르는가?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한국교회 예배 실정에 맞는 전통적이면서 현대적인 예배의 모습을 제안해 보려고도 한다.

## II. 예배의 성경적 용어 정의와 성경 역사적 고찰

### A. 예배의 성경적 용어 정의

#### 1. 예배의 구약적 용어 정의

구약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용어들의 어원적인 의미를 고찰하여 예배의 구약적 정의를 내려보려고 한다.

a) אָבָד(abbadh)<sup>1)</sup>는 “일하다”, “노동하다”, “섬긴다” 등의 뜻이다. 이 말은 본래 육체적 노동이나 노예나 종들의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종교적 의미와 행위가 포함되면서 제물을 드리는 봉사와 레위인들의 회막에서의 봉사를 의미하게 되었다.<sup>2)</sup>

b) שָׁחַח(shahah)는 “머리를 숙이는 것”, “굴복하는 것”, “자신을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교적 숭배’, ‘순종, 봉사’의 개념과 마음과 몸의 존경을 표시하는 태도이다.<sup>3)</sup>

즉,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의 현존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마음의 육체적 태도를 표현하는 말이다.<sup>4)</sup>

c) כָּבוֹד(kabod)는 ‘무게’, ‘존귀함’, ‘명성’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구약성경에서 이 말은 ‘광채로 인한 밝음’을 나타낸다.<sup>5)</sup> 또한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와 위엄한 영광을 타나내는 것이다.<sup>6)</sup>

---

1) 삼하 15:8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2)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종로서적, 1985), pp. 7-8.

3) 이병렬, 「다트 이스라엘」, (서울:교민사, 1982), p. 185.

4) 문희석, 「하나님의 구속역사」, (서울:보이스사, 1973), p. 185.

5) 렘 1:4, 14, 28; 사 6:3

구약적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과 자비에 대한 응답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분의 뜻을 좇아 봉사하는 일련의 행위들로 영혼과 육체의 동일한 고백이며, 드림이다라고 정의 할 수 있다.

## 2. 예배의 신약적 용어

신약성경에서 사용된 예배에 대한 용어는 다양하다.

### a) προσκυνεω(proskuneo)

이 말은 “누구의 손에 입 맞추는 것” 혹은 ‘존경의 표시로 다른 이 앞에 엎드리는 것’, ‘무릎 꿇는 것’을 의미한다.<sup>7)</sup>

이 용어가 예배에 사용될 때에는 “몸을 땅에 굽혀 경배한다”는 뜻이다.<sup>8)</sup> 이 말은 영어의 ‘worship’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 b) λειτουργια(leitorgia)

이 말은 λειτουργ(백성, 공동체)와 εργων(일, 행위)의 합성어로 고전 헬라에서는 정치적 공동체에의 봉사를 의미한다.<sup>9)</sup> 눅 1:23, 고후 9:12, 빌 2:17, 30; 히 8:6, 9:21에서 사용되었으며, 동사로는 행 13:2, 롬 15:27, 히 10:11에서 3회 사용되었다. 이 용어가 희생제물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직무와 관련된 것임을 말해준다.<sup>10)</sup>

구약적 배경에서 λειτουργια는 희생제물적 관계로 교회 봉사를 위한 상징적 개념들로 확대적으로 암시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바울은 교회를 위한 모든 헌금과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전도 여행을 위한

6) 정인찬 편, 「성서대백과 5권」, (서울:기독교지혜사, 1980), p. 770.

7) 요 4:24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쯤니라)

8) 김동수, 「예배학 개론」,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67), pp. 11-12.

9) Ibid., p. 31.

10) 김소영, 「예배와 생활」,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4), p. 31.

현물에도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한 공적 봉사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c) *ὁμολογία*(homologia)

이 말의 뜻은 ‘어떤 말에 동의하다’이다. 어떤 말을 시인하거나 죄를 자백하거나, 금전수령을 확인하거나 어떤 제의에 복종하는 것과 또한 약속하는 것 등의 뜻이다. 이 용어가 신약성경에서 복음의 선포와 신앙고백에 암시적으로 나타나 신앙고백과 실천적인 말씀 선포의 순종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sup>11)</sup>

d) *λατρεία*(latreia)

이 말의 뜻은 ‘섬긴다’라는 뜻으로 ‘지위가 높은 자에 대한 봉사’를 뜻하고 있다.<sup>12)</sup>

이 말은 ‘중으로서 자신의 상전만을 섬겨야 할 신분을 확인시키는 일’에 사용된 말로서 높은 사람에 대한 봉사라는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다(요 16:2, 롬 12:1, 히 9:4).

이상의 용어에서 신약적인 예배는 최대한의 존경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교회를 위한 공적 봉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 믿음의 순종으로써 말씀선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는 삶 자체 등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성경적 개념에 있어서, 단순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일련의 예배 행위뿐만 아니라 짜여져 있는 예배의 순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교회 가운데서 행해지는 있는 모든 삶, 즉 봉사, 헌신의 개념에 까지도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1) 정인찬 편, *op.cit.*, pp. 879-881.

12) 김소영, 「현대 예배학」, (서울:기독교서회, 1993), pp. 43-44.

## B. 예배의 성경 역사적 고찰

기독교 예배는 성경에 근거해야 됨은 당연하다. 우리는 성경에 공중 예배의 형태와 실행의 원리가 있다고 믿으며, 따라서 예배규범 형성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먼저 근거해 해야 한다.

구약에서 예배의 근원을 찾는다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인과 아벨의 기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행위를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의 제사행위는 완전한 예배 행위이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받은 아담과 하와의 기사에서 우리는 제사드렸다는 기사를 찾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미 아담과 하와도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sup>13)</sup>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드린 예배의 형태는 이스라엘 주위의 이방민족들이 행했던 예배의 형태와 외관으로는 비슷했지만 내적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이방민족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총애를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견지에서 그들 스스로 숭배하는 행위를 만들어 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 예배는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응답일 뿐인 것이다.

---

13) Robert G. Rayburn, 「예배학」, 김달생, 강귀봉 공역, (서울:성광문화사, 1992), pp. 54-55.

레이번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이 특별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즐기던 타락이전에 에덴동산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예배를 안식일과 연결시킨다.

## 1. 족장시대의 예배

이 시기의 예배의 형태는 지극히 자연적이었다. 특별한 예배의 형태나 아니면 규범으로 주어진 틀에 의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닌 자연적인 현상을 띄고 있다. 장소에 있어서도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아니하였다.<sup>14)</sup> 그들이 이동하는 도중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그들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이것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sup>15)</sup>

이 시대의 제사는 지극히 개인적인 제사였다. 제정된 제사장도 없었고, 제단이나 장소가 따로 구별되지 않았으며, 어느 곳에서든지 그들 스스로가 제사의 주관자가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족장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받으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제사 드림으로 후대에 이어질 예배의 기본적인 본을 이어가게 된다.<sup>16)</sup>

## 2. 율법시대의 예배

족장시대의 제사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소집단적이었다면, 율법시대에는 더욱 확대되어 민족적이었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시작된다. 예배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이다. 이 시대에

---

14) 김병원,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본질적 의미” 「월간고신」, (1990, 11월), p. 17.

15) 김소영, 「예배와 생활」, p. 11.

16) 아브라함의 제사(창 12:7-8, 13:, 15:, 22:), 이삭의 제사(창 26:23-25), 야곱의 제사(창 28:11-22)

사용된 인물은 모세이다. 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예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으로 남겼다. 그는 예배의 장소로서 ‘회막’에 대해서 지시를 받아 지었으며, 또한 이방민족들과의 혼란된 예배의 형태에 있어서도 새로운 질서를 세워 주었으며, 제사장 계열의 확정과 제사제도, 제사의 방법, 또한 시기까지, 이제는 예배에 있어서 규정된 형태의 속성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모세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3. 성전예배

약속의 땅인 가나안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곧 광야 성막의 시대에서 성전의 시대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동이 가능한 장소가 아닌 불가능한 지정장소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었다.

성전에는 법궤가 모셔졌고, 진설병과 황금 등대를 비롯한 많은 기구들이 성전을 장식했으며, 여러 악기를 사용한 찬송이 불려졌다. 또한 예배 참여자들은 제사 제물 뿐만이 아닌 십일조, 구제헌금 등 각종 예물이 드려졌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예배 행위는 음악, 축송, 춤, 기도, 행렬, 단순한 설교 또는 강화, 선조들에 대한 회상, 고백 등을 하면서 거룩한 식사를 나누는 순서를 가졌다.<sup>17)</sup>

이 성전 예배는 유대인들의 종교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기능을 충족시켜 주었다. 첫째로, 성전은 여호와가 중심이 되었고 국가 생활에 있어서 법률의 중심지가 되었다. 둘째로, 성전은 제사와 기도와 찬양을 하나

---

17) 정장복, op.cit., pp. 34-35.

님께 드리는 의식을 행하는 정규예배를 위한 기회를 가지는 곳이 되었다. 셋째로, 성전은 유대인들의 절기마다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행사를 위하여 모이는 장소로 사용되었다.<sup>18)</sup>

성전예배의 말씀과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전예배는 솔로몬 말기부터 그의 타락과 함께 형식화되기 시작했으며, 예배의 본래적 목적을 상실해 가기 시작했다. 선지자들과 몇 왕들에 의해 갱신운동을 벌이기는 했지만<sup>19)</sup>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민족의 멸망이라는 대 수난을 겪게 된다.

#### 4. 회당예배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희생의 제물을 드릴 수 없게 되자 포로지에서 희생의 예배를 대신하여 포로민들에게 허용된 것이 회당(synagogue)에서 드리는 예배였다.<sup>20)</sup> 회당은 “synagogue”에서 온 말로 “회집하는 집” 또는 “모이는 곳”을 의미한다. 이제는 예배의 속성이 제사를 드림에서 모임으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포로 귀환 후 성전이 재건되고 희생의 제사가 다시 시행되지만 회당예배도 계속 시행이 되어져 간다.

---

18) 김소영, op.cit., p. 68.

19) 요시아 왕의 개혁운동은 힐기야에 의해서 발견된 율법책의 이른 바대로 우상 제단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촉구하며, 성전의 재건과 예전의 회복을 이루었다.

예레미야는 형식에 사로잡힌 제사장들의 종교성을 비판하면서 영적인 종교로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갔다. 그는 제도적인 개혁보다도 개인의 책임성과 그들 심령의 변화가 시급함을 주장하며 내재적 종교로서의 개혁을 외롭게 부르짖었다.

에스겔은 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성을 대단히 강조한 선지자이다. 그는 영적 정화를 부르짖었으며, 그는 성소의 예배와 영적 생활 병행하는 개혁을 시도하였다.

20) 김소영 「현대예배학」, p. 15.



회당에서의 예배 의식은 쉼표를 낭독하고 축복기도, 율법낭독, 강해와 권면, 축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1)</sup> 회당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는 ‘가르침’이 있다. 유대인의 예배에서 성경낭독과 강해보다 더 강조된 것은 없다. 구약의 의식과 형식에 치우친 제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예배로의 존속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여기서 막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구약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었으며 인간이 하나님에게 제사와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행위였다. 구약시대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로 나아가고 종교음악 분야의 발달을 가져온 것은 신약 예배 형태에로의 급진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본다.

그리하여 1세기에는 유대인 거주지에는 반드시 회당이 존재하게 되었고 회당 예배는 이스라엘에게 영적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성경교훈을 강조하였으며<sup>22)</sup>, 그 후 기도와 설교가 예배에 첨가되었다. 또한 처음에는 안식일과 축제일에만 행해졌던 이러한 회합들은 다른 날에도 행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회당을 배움의 집이며 동시에 기도와 찬양의 장소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회당의 본질적 목적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데 있었다. 회당은 제사장 대신 랍비가 국가의 공동신앙을 개인생활에 적용시키는 장소가 되었다.

회당예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덜 형식적이다. 둘째, 제사장 기능보다 교사가 회당에서 중심적 인물이었다. 셋째, 일반인의 참여가 증가되었다.

---

21) Franklin M. Seger, 「예배학 원론」, 정진황 역 (서울:요단출판사, 1973), p. 42.

22) 은준관, “예배의 본질과 형식에 대한 반성”, 「기독교사상」, (1972, 31권 9호), p. 48.

## 5. 예수님 시대의 예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또한 회당에서의 안식일 예배에 출석하셨으며, 회당에서 설교도 하셨다. 예수님은 회당예배의 정통성을 인정하신 반면 유대인처럼 성전에서의 절기예배도 함께 드리셨다.<sup>23)</sup>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락방 예배를 행하셨고 예배에 성찬예식이 첨가되었다. 이외에도 예수님은 신약교회의 예배 기초를 이루어 놓으셨다.

예수님은 구약의 의식적 예배를 폐지하고 새로운 영적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며(요4:24), 신약의 예전인 성찬식과 세례식이 제정되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구약의 의식적 예배가 실제로 완전히 성취되었던 것이다. 즉 예수님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이후 희생제사로 드리는 성전예배의 종결을 고하였다.<sup>24)</sup>

## 6. 사도시대의 예배

사도들의 예배는 성전과 회당에서 드렸졌지만, 이제 더 이상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따라서 초대기독교인들은 가정이나, 예배를 위해 마련된 장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고정적인 예배 장소의 성전을 탈피하였다.

사도시대의 예배는 비형식적인 전도형식의 예배가 있었고 또한 식탁의 교제와 함께 기도와 감사와 간증이 동반된 예배가 있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만찬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점차 식탁교제는 문제로

---

23) 김수학, 「주교 예배학」,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0), p. 20.

24) Robert G. Rayburn, op.cit., pp. 18-22.

인해 폐지되어지고 성만찬만이 거행되었다.<sup>25)</sup> 예배의 순서는 기도, 찬송, 가르침, 예언, 방언과 축도로 진행되었다.<sup>26)</sup>

## 7. 초대교회 예배

예배는 영적인 활동이며,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다. 예배의 규범이나 규칙은 신약성경 내에서는 찾을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 예배에서 예배의 필수적이고 중심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는 찾을 수 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다(행 2:46). 그러므로 성전이나 회당에 모여 예배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기독교 예배는 성전예배와 회당예배의 전통 안에서 이루어졌다. “성례전”은 희생제사를 드린 성전예배와 연결되고, “말씀”은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고 성서를 낭독하며 가르친 회당예배와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회당예배와 다락방예배의 내용이 통합되어 “말씀”과 “성례전”을 주축으로 하는 기독교의 예배의 윤곽이 생겼다.<sup>27)</sup> 그리고 예배에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봉복과 그 말씀의 강해가 있었다. 예배에는 또한 성만찬과 애찬이 포함되어 있었고 찬양과 신령한 노래들도 있었다.

주일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최상의 날로 기억하여 드렸으며(행 20:7; 고전 16:2), 주님의 만찬에는 반드시 주님께 드리는 헌금의 시간도 있었다.<sup>28)</sup>

맥스웰은 초대교회 예배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고 말하고

---

25) Abba, R.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제」,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1), p. 24.

26) 김소영, *op.cit.*, p. 24.

27)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p. 73.

28) 김연택, 「건강한 교회와 예배」, (서울:프리젠티, 2000), p. 251.

있다.<sup>29)</sup>

- 성경의 가르침(딤펴전 4:13; 살전 5:27; 골 4:16)
- 시편과 찬송(고전 14:16; 엡 5:19; 골 3:16)
- 공동기도(행 2:42; 딤펴전 2:1-2)
- 성도들의 아멘(고전 14:16)
- 설교 또는 강해(고전 14:26; 행 20:7)
- 신앙고백(고전 15:1-4; 딤펴전 6:12)
- 구제(고전 16:1-2; 고후 9:10-13; 롬 15:26)

이와 같은 예배의 내용은 주로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갖추었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성만찬(고전 10:16; 11:23), 헌신과 감사의 기도(눅 22:19; 고전 11:23-26; 14:16; 딤펴전2:1), 사도의 신앙에 따른 찬송(빌 2:6-11; 딤펴전 3:16), 성도 간의 평안의 문안인사와 입맞춤(롬 16:16; 고전 16:20) 등과 같은 내용들이 예배 시간에 포함되어져 있었다.

수세기를 통하여 예배는 점차 전통적인 예배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참된 예배는 말씀, 찬양, 기도의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 8. 초기 기독교 시대의 예배

초기 몇세기 동안의 기독교 발전에 관한 문헌은 거의 찾아 보기가 힘들어 그 자료가 매우 약하다. 왜냐하면 로마의 박해 속에서 교회가 지하로 내려감으로 어떠한 예배의 형태를 취하였는지 남아있는 기록이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단지 몇 개의 문헌<sup>30)</sup>을 통해서 예배내용을 파악할

---

29) William. D. Maxwell, 「예배의 발전과 그 형태」, 정장복 역, (서울:출판출판사, 1996), p. 17.

자료가 제공된다.

크레멘트 선신 34:6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노래가 언급되어지며, 59:2-61:3 에는 성만찬 예전에서 집례할 때 대중재 기도로 드러진 것이 아닌가 하는 기도문이 들어있다. 또한 감독을 ‘예물을 드리는 자’로 설명함으로 헌금에 대한 언급도 포함하고 있다.<sup>31)</sup> 그리고 폴리니의 보고에 의하면 기독교 모임은 주일새벽에 있었고, 여기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찬송”이 불려지고 죄악을 삼가기 위해 성례전을 집행하였다. 그리고 나서 “공동”, “무해한”으로 설명된 음식을 먹었다.<sup>32)</sup>

“디다케”의 교훈집에는 세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으며, 세례자만이 성만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9장과 10장에서는 식후의 감사기도를 서술하고 있다.<sup>33)</sup>

저스틴의 변증문 안에서 초대교회 예배에 대한 일반적 개요가 소개된다. 그 순서는 먼저 찬송, 성경낭독, 강론, 기도, 성찬식, 헌금 등으로 이루어 졌으며, 기도와 성경낭독과 교훈이 연합된 성찬식적 예배이었다.<sup>34)</sup> 그리고 저스틴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2세기의 교회가 매주 첫날을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로 정하여 한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다.

로마의 히폴리투스가 편집한 사도전승에는 2세기 직후 3세기 초의 문헌으로 전례와 교회규범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역사자료를 포

---

30) 그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①로마의 클레멘트가 A.D 90년 경에 고린도에 보낸 첫 편지. ②A.D112년 경 소아시아 비진아의 총독이었던 폴리니가 로마의 트리안 황제에게 보낸 편지 ③A.D 130년 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디다케라 부르는 12사도 교훈집 ④A.D. 140년경에 순교한 저스틴이 로마의 황제 아토니우스 피우스에게 보낸 변증문 ⑤A.D. 200년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전승, 일명 이집트 교회 예식서라고 불림

31) 정승훈, 「말씀과 예전」,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8), p. 12.

32) 이종기, 「교회사」, (서울:세종문화사, 1979), p. 84.

33) Franklin M. Seger, op.cit, p. 50.

34) 김득룡, 「현대교회 예배학 신강」, (서울:총신대학교 출판부, 1996), p. 45.

함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주교서품, 사제서품, 각종직 수여절차, 성찬전례, 예비자 교육, 세례성사, 기도 시간과 방법, 단식규정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나중에 동서방 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초기 기독교시대의 예배의 특성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렸으며, 설교에 있어서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하여 신앙을 일깨웠고, 성경봉독 또한 주님에 관한 구절들이었다. 또한 그 예배는 성령 안에서의 예배였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열정을 지닌 성도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예배였다.

성경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예배의 모형은 주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어 성령을 이땅에 보내시는 그 때까지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처음 특별한 장소나, 내용이 없는 제사예배는 족장시대를 거쳐 율법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제사제도를 통해 지정된 장소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그 제사는 성전시대를 거쳐 회당시대가 되면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어떤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징을 갖게 된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제사예배가 사라지고 주님이 성만찬을 시행함으로 예배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오는데 즉, 성만찬과 말씀의 예배로 그 특징을 삼으며, 찬양과 성경봉독, 기도, 강해, 헌금 등 여러 가지 예배 요소가 포함된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주일 예배가 초대기독교시대에 시작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다.

역사적인 고찰을 통하여 살펴본바는 주님이 바로 예배의 중심이며, 주인이 되시고 제정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성경속의 예배의 발

전을 무시할 수 없으며, 그것을 기본으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발전 속에서 그 예배의 모범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

초기 기독교 역사까지의 예배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유대교의 예식이나 제의의 종말을 선포하였다는 것과 기독교 예배의 공통자료는 그리스도 사건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예배의 중심 축으로 회당예배에서 온 말씀의 예전과 주님의 성만찬으로부터 온 다락방 예전을 놓을 수 있다. 즉 초기기독교의 예배는 회당예배의 중심인 말씀과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Ⅲ. 한국 개혁주의 교회예배

#### A. 칼빈의 예배의식

칼빈은 루터보다 더 급진적이었으나, 쾰링겐 보다는 덜 급진적이었다. 칼빈은 성만찬을 자주 행하고 잘 모여야 한다고 믿었다. 칼빈도 루터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말씀의 예배”와 “다락방의 예배”를 개신교회의 예배 이념으로 삼았다.<sup>35)</sup> 칼빈은 예배에서 죄의 고백의 기도를 강조했다.<sup>36)</sup>

칼빈의 제네바 예배의식(Strausbourg 예식서, 1542)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7)</sup>

#### [말씀의 예배식]

성서의 글-시편 124:8

죄의 고백

용서를 바라는 기도

운율의 시편

계시를 위한 특별 기도

성구의 독송

설교

#### [다락방의 예배식]

---

35) 김동수, op.cit., p. 226.

36) Thomson, Bar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Philadelphia:Fortress Press, 1980), .pp.197-198.

37) Franklin M. Segler, op.cit., p.60.



헌금의 수집

대도

길게 풀이된 주님의 기도

성찬 음식의 준비 시간

사도신경의 노래

교훈의 말씀

권면

헌신의 기도

성찬 떡의 분할

분배

성찬-그 동안에 시편이나 성서를 읽는다.

성찬후의 특별기도

아론의 축복

칼빈의 첫 예배 의식은 그가 1538-41년 사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망명한 프랑스 회중들을 목회하던 때에 만들어졌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3년여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제네바로 돌아온 칼빈은 1542년 그의 예배 모범(Service Book)을 펴낸다. 이것은 [초대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른 성만찬의 집례 요령과 그 기도문](The Form of Prayer and Manner of Ministering the Sacraments 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Ancient Church)이라는 기다란 제목으로 출간되었는데, 이 예전은 스트라스부르크의 부처의 예전과 파렐(William Farel)의 예전에서 받은 깊은 영향과 자신의 예배 현장에서 얻은 경험들을 종합하여 이 예전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일요 예배에 있어서 나는 스트라스부르크 예배

의식을 취하였고, 많은 부분들을 그것에서 빌려 왔다”고 말한다.<sup>38)</sup>

칼빈이 1542년 제네바에서 발간한 Strausbourg 예식서는 스코틀랜드와 수세기 동안 미국교회를 포함한 장로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예배의 한 모델을 제시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칼빈의 예배는 부처의 영향을 받았다. 부처의 예배가 칼빈에게 영향을 준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새로운 예배의 형성이며, 다른 하나는 시편송의 사용이었다. 새로운 예배 형성이란 성찬을 포함할 수도 있고, 삭제 할 수도 있는 예배형을 말한다. 이것은 후에 스코틀랜드 교회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 시편송의 사용은 일반적인 찬송의 사용이 아니라, 회중이 노래할 수 있는 운율적 시의 사용을 말한다.<sup>39)</sup>

칼빈의 예배가 가진 특성은 성실성과 존엄성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그분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일이 칼빈의 예배의 목표였다.<sup>40)</sup>

## 1. 칼빈의 예배 의식의 특징

- 초대 교회의 예배 예전을 회복하려함-

1545년 그가 작성한 예배 의식의 서문에서 초대 교회의 단순하고 간결한 성만찬 예전을 회복하려 했던 그의 입장을 찾아볼 수 있다.

---

38) “제네바 예서의 칼빈의 예배의식”

[http://board2.cgiworld.net/view.cgi?id=jesusil&now=1&jd=-1&ino=45&tmp\\_no=47.htm](http://board2.cgiworld.net/view.cgi?id=jesusil&now=1&jd=-1&ino=45&tmp_no=47.htm).

39)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p. 128.

40) Ibid., pp. 129-130.

“...우리는 성만찬 예전을 통하여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되므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께 경배드린다. 우리는 경외와 찬양과 감사로 신비한 성만찬을 받는다. 이러한 절차와 방법으로 우리는 예배를 진행하는데, 이것은 사도와 교부들 시대의 고대 교회와 일치되는 것이다”<sup>41)</sup>

칼빈은 은혜의 방편으로 두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말씀과 다른 하나는 성례전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목회는 말씀과 성례전에 대한 사역이었다. 목회자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업과 직무는 설교와 교육을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매주일 성만찬을 집례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봉독과 해설을 고대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예배의 중심에 놓았고, 성만찬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가졌던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전 생애 동안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의 후계자들에게도 이것을 분명히 하도록 하였다.

칼빈의 예전에서 특징적인 것은 초대 교회와 같이 성체를 받기 위해 나아 온 사람들에게 권고와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으며, 성경 봉독과 설교 전에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운율을 사용한 시편이 찬송되었다는 점과 구제를 위한 헌금이 드려짐으로서 사람들에게 의한 봉헌이라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만찬 신학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칼빈은 중세 미사를 흉내내는 것을 싫어하였으며 그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초대교회가 드렸던 예배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sup>42)</sup>

---

41) “제네바 에서의 칼빈의 예배의식”, op.cit.

42) Ibid.

## C.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개혁교회의 역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특히 개혁교회 장로교 예배의 전통속에서 그 줄기를 지속시켜 오고 있다. 이 예배모범을 통해서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는 초대교회가 말씀중심으로 가졌던 예배의 맥을 회복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 지난 한세기 동안 한국교회, 특히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장로교 개혁주의에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은 채 단지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여 준 나라의 예배형태와 그들이 설정한 예배모범만 고수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 1. 낙스(John, Knox)의 스코틀랜드 개혁운동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는 낙스의 스코틀랜드 교회의 개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도화선은 영국의 헨리 8세(1491-1547)가 영국의회를 거쳐 선언했던 ‘영국교회의 수장령’(1543년)이 있기 6년전, 1528년에 뿌려진 순교의 피였다. 그것은 성 앤드류 대학의 교수였던 해밀턴(Patrick Hamilton, 1503-1528)의 순교이다. 이 순교의 피는 존 낙스의 스승이었던 위샤트(George Wishart, 1513-1546)의 순교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때 33세의 젊은 존 낙스(John, Knox, 1513-1572)는 자신의 스승의 순교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더 강렬한 개혁의 불씨를 가슴에 안게 되었다.<sup>43)</sup>

낙스의 개혁 의지는 설교와 조직들을 통하여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개혁교도들을 위한 일시적인 목회와 제네바에서의 칼빈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배와 신학에서 개혁의 내실을 갖게 되는 개혁의 여정을 걷게 되었다.<sup>44)</sup>

1558년 메리 여왕이 죽자, 1559년 스코틀랜드로 귀국하는데, 스코틀랜드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제네바로부터 손에 들고 들어온 역사적인 세권의 책이 있다. 그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신조를 정리한 ‘Confess of Faith’와 목회와 교회행정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Book of Discipline’ 그리고 예배 지침서인 ‘Form of Prayers’이다. 이 세권의 지침서는 후에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통과된 제반 지침서들의 초석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예배를 위한 지침서인 ‘Form of Prayers’는 낙스 자신이 독일의 프랑크포트와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칼빈의 예식서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사용하던 예식서로서 스코틀랜드교회의 예배 개혁의 지침서가 되었다.

이 공인된 예배모범은 ‘낙스 예식서(Knox’s Liturge)’ 또는 ‘공동 예배 모범(Book of Common Order)’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부분적인 수정은 있었으나 거의 그대로 전수되어 1645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새로운 예배모범이 나오기까지 명실공히 스코틀랜드교회의 예배의 기본 지침서가 되었다.<sup>45)</sup>

---

43) 정장복, 「예배의 신학」, (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p. 167.

44) Ibid.

45) Ibid., p. 167.

## 2. 웨스트민스터 성회(Westminster Assembly of Divine)

1643년 영국의 의회는 ‘스코틀랜드의 종교적인 문제의 해결’이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교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모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121명의 성직자들을 임명하고 의회로부터 30명의 평신도를 파송하여 회의를 구성하게 하였다. 그 구성원들은 대부분 장로교주의 퓨리탄들이 차지하였고, 그리고 스코틀랜드교회로부터는 전문위원의 자격으로 2명의 평신도와 4명의 목사가 참석하였다. 의회는 이 모임의 장소를 웨스트민스터로 정하고 그 모임의 이름은 웨스트민스트 성회(Westminster Assembly of Divine)라고 칭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1649년 휴회를 하기까지 1163회의 모임을 거쳐 기독교 역사에 소중한 공헌을 남기게 되었다.<sup>46)</sup>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개혁교회에서 이 성회는 오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 만을 위한 모임처럼 인식되어 왔으나 이러한 인식은 지극히 단편적이라는 것이다. 이 모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제네바의 개혁사상을 그대로 이어온 존 낙스의 예배모범을 스코틀랜드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기에 이 성회는 먼저 그들이 원하는 예배모범을 창출해 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은 필립 나이(Philip Nye)의 개회 설교에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목적은 예배의 정화(Purification)이다.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진 모델에 따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어지는 대로 따르는 예배이어야 한다.”<sup>47)</sup>

이 회의에서 엄격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1645년 1월에야 비로서 이

---

46) Ibid., pp. 176-177.

47) C.V.Wedgwood, 「The king's War」 (New York:Macmillan, 1959), p. 258.

예배모범이 의회의 인준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그들은 영국교회의 예식서를 벗어나 합법적으로 개혁신교회의 예배를 드리는 감격을 맞게 되었고 로마 카톨릭과 같은 제도와 예전을 소유한 영국교회와는 전혀 다른 장로교제도를 도입한 ‘스코트랜드교회’의 터전을 굳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세계의 장로교는 이 예배모범을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규범의 모체로 삼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성회는 개혁주의적 교회 정치 체제를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예배 모범을 완성하였다.

총회는 오랜 논의 끝에 개혁주의적 장로교도의 신앙의 정수라고 불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The Wsetminster Confession of Faith), 장년 교육을 위하여 작성한 『대요리문답』(The Larger Catechism), 자녀 교육을 위한 지침서로서 『소요리문답』(The Shorter Catechism), 예배의 원리를 제시한 『예배 모범서』(Directory of Public Worship)와 교회 정치 문제를 다룬 『교회 정부 형태』(Form of Church Government) 등의 표준 문서를 만들어 냈다. 『예배 모범서』와 『교회정부형태』는 1644년 12월, 『교회 행정을 위한 지침서』(A Directory for Church Government, Church Censures, and Ordination of Minister)는 다음 해 7월에 완성되었다.<sup>48)</sup>

### 3.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구조와 내용

이 예배 모범은 그 기본 정신과 표현에 있어서는 제네바 예식서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으나 그 구조와 내용은 새롭게 편성되었다. 이 예배

---

48) 오덕교, 「장로교회사」(수원: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5), p. 165.

모범은 공중기도, 성경봉독, 시편송, 설교, 성례전 그리고 기타의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각 항목들은 모두가 개신교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들로 제시되어 있다.<sup>49)</sup>

**a. 공적예배를 위한 회중의 모임과 그 태도에 대하여**

예배는 의무이며, 반드시 마음에 준비를 하고 참석을 해야한다. 또한 예배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동을 금해야 한다(무엇을 읽는다거나, 옆 사람과 이야기 하는 것, 조는 것, 특수한 인물에 대한 경의의 표하는 것 등). 또한 예배자들은 개인적인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는 행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

**b. 성경봉독에 대하여**

성경봉독은 공중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예배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분만을 경배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봉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과 성화의 방편이 된다.

**c. 설교전의 기도에 대하여**

설교전 기도는 말씀을 경청하는데 걸림이 되는 죄를 참회케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기도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순서를 가질 수도 있다.

**d. 말씀의 선포에 관하여**

말씀의 선포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사역에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부분으로써 성실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 설교 후 기도에 관하여**

설교자는 설교가 끝났을 때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심

---

49) 정장복, op.cit., pp. 180-189.



에 감사의 기도를 하여야 한다. 이 기도가 끝났을 때 회중과 함께 시편 송을 부리고 특별한 행사가 없을 때는 여기서 엄숙하게 하나님께 복 내려 주심을 선언하고 예배를 끝맺는다.

**f. 세례 성례전에 관하여**

세례는 너무 지체함없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목사에 의하여 공중예배의 시간에 회중들 앞에서 주어져야 한다.

**g. 성만찬 성례에 관하여**

성만찬 성례는 자주 행함이 좋으나 그 횟수는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 유익하게 정함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는 주일 오전 예배의 설교 후가 적절하다. 이 성례전이 끝난 다음에 가난한 이웃을 위한 헌금을 감사의 응답으로 할 수 있다.

**h. 신성한 주님의 날에 관하여**

**i. 엄숙한 결혼에 관하여**

**j. 병자의 심방에 관하여**

**k. 죽은 자의 장례에 대하여**

**l. 공적인 금식에 관하여**

**m. 공적인 감사의 날에 관하여**

**n. 시편송에 대하여**

**D. 청교도의 예배 모범**

영국의 개혁의 지도자들은 메리 튜더(Mary Tudor, 1516-1558) 여왕의 잔인한 핍박을 피하여 대륙으로 망명하였으나 뜨거운 개혁의 숨결을 가지고 대륙의 개혁 현장을 경험하게 된다. 특별히 이들은 기록되어진

말씀과 선포되어진 말씀 그리고 성례전이 교회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는 칼빈의 개혁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엘리자베스 즉위이후(1558) 이들은 영국에서의 개혁을 갈망하는 동지들을 규합하고 칼빈주의에 입각한 프로테스탄트 개혁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진정한 신앙과 행위의 최고 권위는 성경이어야 한다는 기독교 기본정신의 실현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영국교회에 새로운 정품을 일으키게 되었다<sup>50)</sup>.

칭교도들이 소원하였던 이상은 교회의 구조와 예배의 내용들이 성경에 잘 예시된 대로 초대교회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칭교도들은 예배의 개혁이 바로 교회 개혁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였다. 예배 개혁을 통하여, 부덕한 목사를 양산하지 않게 되고, 양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으며, 신앙적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적으로 예배를 개혁하고, 영국과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배 모범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배 모범서』작성의 원칙으로 “모든 규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따르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신자의 지혜를 따르되,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에 따를 것”을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배 모범서』의 예배 순서를 초대 교회의 모형을 따라 단 순화시켰다. 모든 회중이 모이면, (1) 예배로의 부르심이 있는데, 목사가 엄숙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자고 말하므로 시작하였다. (2) 그 다음에 개회 기도가 따르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모든 경건과 겸손으로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함과 위엄을 승인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특별히 나타난

---

50) Ibid., pp. 171-172.

다), 저희의 약함과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무자격,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없는 저희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한 후, 겸손히 용서를 구하고, 이제 드리는 예배순서마다 도와주시고, 받으시며, 입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 주실 것을 겸손히 간구하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중보로 기도할 것이다. 기도 후, (3) 성경봉독이 있는데, 성경봉독은 교사와 목사가 행할 것이나, “목사 후보생도 노회가 허락하는 경우에는 회중 앞에서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하는 은사를 같이 행해도 된다”고 하였다. (4) 그 다음에는 설교를 앞두고 공중 기도가 있는데, 이 때 목사는 회중의 원죄와 자범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주사 그리스도의 나라가 모든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것과 왕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였고, (5) 그후 설교가 있고, (6) 설교 후 기도와, (7)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였고, 때때로 성찬과 세례식을 가지도록 하였다. 그런데 청교도의 예배가 한국 장로교회의 예배와 다른 것은 사도신경을 예배 순서에서 제외한 점이다. 이는 사도신경이 예배의 순서로 성경에 기록된 바 없고, 이단적인 신앙으로부터 바른 신앙을 구별하는 척도로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지, 성격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sup>51)</sup>

청교도들은 『교회 행정을 위한 지침서』<sup>52)</sup>와 『예배 모범서』를 통해서 예배의 내용에 대하여 가르쳤고, 『대요리문답』을 통해서는 예배

51) 오덕교, op.cit., pp. 172-174.

52) 『교회 행정을 위한 지침서』는 지역 교회에서 예배 순서를 기도, 감사, 찬송(시편 찬송), 성경봉독, 설교와 요리문답, 성례, 축복,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 축복기도로 규정하였다. (Charles G. Dennison & Richard Gamble, Pressing Toward the Mark: Essays Commemorating Fifty Years of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Philadelphia: The Committee for the Historian of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p. 89.)

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청교도들은 십계명의 처음 4계명에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를 포함한다고 보고 그 가운데서 인간의 의무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원리를 찾았다.

제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규정한다고 보았다(대요리문답 104문). 그리고 제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규정한다고 보았다(대요리문답 108문). 제 3계명은 예배하는 자의 자세를 명시하고 있다고 하였다(대요리문답 112문). 제 4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대하여 명시한 것으로 간주하였다(대요리문답 116-118문).<sup>53)</sup>

이와 같이 청교도들은 예배의 원리로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 한 분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되 특별히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할 것을 주장하였다. 청교도들의 ‘성경에 명한 것만을 예배의 내용으로 해야 한다’는 사상은 개혁주의 신학 정통을 따른 것으로 현대 개혁주의 교회의 예배 모범이 되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개혁주의 전통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즉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예배 순서에서 제외하려고 하였고 또한 초대교회 예배의 형태를 복원하려는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의 예배를 되도록 많이 실행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

53) 오덕교, op.cit., pp. 175-179.

## IV. 개혁주의 예배의 제요소

### A. 개혁주의 예배와 설교

예배에서 말씀사역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고 교회의 확장은 곧 말씀의 전파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전해지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배의 중심이 된다.

설교가 예배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sup>54)</sup>

이미 3세기 성도들에게도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봉독하는 것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로 인정되었고 16세기 이후에는 더욱 강조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예배의 핵심이며, 이 설교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되시고 주되심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봉사들을 통하여 주어진 영적인 음식을 거부하는 자는 모두 굶주림과 절식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하여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설교의 가치에 대하여 강변하였다.<sup>55)</sup>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는 이 말세에 사람들이 돌이켜 진리를 듣기보다는 자기 사욕을 채워 주는 말을 듣기 원한다는 바울의 예언에 현대교회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54) 김연택, op.cit., p. 254.

55) Wilhelm Niesel,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1), p. 152.

## B. 개혁주의 예배와 고백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배에는 두가지 고백이 있어야 한다.

첫째, 죄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어야 한다(시 51:1-6).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일이다. 예배시간의 고백은 죄 씻음과 죄의 버림을 의미한다.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용서하실 뿐만아니라 죄의 심판을 면케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sup>56)</sup>

둘째,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믿음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자들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한다(고후 9:13).<sup>57)</sup> 이러한 신앙 고백이 예배시간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고백도 예배의 한 행위임을 알고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개인적인 신앙고백을 해야 한다.

## C. 개혁주의 예배와 헌금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로 다른 사람들

---

56) 김연택, *op.cit.*, p. 256.

57) *Ibid.*, p. 256.

을 돕기 위해 드리는 것이다(롬 15:27; 고전 16:1-4; 고후 8:1-15).<sup>58)</sup>

예수님은 억지로 바치지 않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경고하셨다(눅 12:13-21).

#### D. 개혁주의 예배와 음악

찬양은 구약의 예배에서는 물론, 신약의 예배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드리며 언제나 시편 찬송을 불렀다(골 3:16; 엡 5:19). 사도바울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골 3:16), 서로 찬양하며 위로하라고 가르치고 있다(엡 5:18).

칼빈은 예배 시간에 성경말씀으로 된 시편찬송을 주장했고, 오늘날은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고 찬양의 스타일이 다양해 졌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뿐만아니라, 성도들간에 영적인 교통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 E. 개혁주의 예배와 기도

기도는 예배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케 하시며,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마 21:13) 말씀하신 것은 성경을 통해서 기도가 회당의 예배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기도는 주일 예배뿐 아니라,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집회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종교개혁 이후 목회기도가 예배 시간에 있게 되었고, 칼빈은 기도

---

58) Ibid., p. 257.

대하여 축시적인 기도문 작성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기도의 주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도록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고 죄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대한 감사, 모든 은총에 대한 감사, 중재의 기도였으며, 주기도문 사용과 사도신경 암송을 좋아했다.<sup>59)</sup>

기도는 예배의 가장 필수적인 요인인 동시에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데 최우선적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방편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통로이다.

## F. 개혁주의와 성례전

칼빈은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형적인 표로 확인하는 증거이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sup>60)</sup>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성례전을 정하셨다. 우리는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며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다.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몸에 인침을 받게 되며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강화되고 확고해지며 증강이 된다.”<sup>61)</sup>

우리는 성례전을 통하여 중보자와 연합하게 되며, 그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세례식이 특별 목적으로 정해진 주일에 하지만 성찬식은 매 주일마다 거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찬성례전은 외형적인 표시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의 입증이다.

---

59) Ralph.G.Tunbull, 박근원 역, 「실천신학 사전 3권」,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pp. 346-347.

60) Calvin, Ins, IV.14.1.

61) Ins., IV.14.11.



## V. 한국 장로교회 예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한국 장로교의 예배의 역사

평신도에 의해 주도되었던 한국교회의 예배는 1907년 7명의 한국인 목사가 최초로 배출되면서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서의 평신도의 역할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1910년 콕안런(The Rev. Charles Allen Clark)선교사는 신학생과 목사를 위한 강도 요령을 발간하였는데 그 내용은 지금까지의 성경공부 형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바야흐로 목사들에 의한 조직적인 설교의 시대가 열린 것이었다. 한국인 목사들의 역할은 예배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점차로 평신도를 위해 마련되었던 간단한 예배순서가 아닌 교과적 특성을 지닌 보다 길고 다양한 예배 순서들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1919년 콕안런 교수는 목사지법(The Pastoral Theology)이라는 책을 발간 하였는데 그 책에서 그는 목사들에 의해서 주도될 새로운 예배 순서를 제안하였다. 그 예배순서에는 칼빈과 장로교회의 전통적인 순서인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 그리고 성서를 순서대로 읽어내려가는 것(lectio continua)과 설교와 관련된 성서를 읽는 것(lectio selecta)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선교사들은 초기 한국인 목사들이 없는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유지하여왔던 평신도가 인도하는 예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제는 한국 목회자들에 의해서 보다 정규적인 예배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는 이러한 선교사들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한국교회는 훈련된 목회자들이 배출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들에 의해서 드러지던 단순한 예배를 고수하였다. 1932년 새문안 교회에서 드러진 예배 순서와 1895년 네비우스 정책을 토대로 임시로 평신도들에 의해서 드러질 예배 순서의 초안을 비교하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한국에 세워진 첫 번째 개신교 조직교회는 1887년 9월 27일(화요일)에 서울 정동 언더우드 의 사택에서 14명의 남자 세례교인들로 시작된 정동교회(새문안장로교회의 전신)이었다.<sup>62)</sup> 그러나 지금까지 새문안교회에서 드린 첫 공식예배에 관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한국 장로교회의 첫 예배 형식은 1895년에 마펏(Samuel A. Moffett)이 발행한 『위원입교인규도(位願入教人規道)』에서 소개된다. 이 교리문답은 장로교 입문서로 다양한 기도 및 찬송과 함께 신앙 초보자들에게 기본적인 교회 정치와 예식을 제공한다. 마펏이 소개한 주일 예배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sup>63)</sup>

### 마펏이 소개한 주일예배 순서(1895)

찬송

기도

성경봉독

기도(회중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대표로 함)

찬송

성경강도

---

62) H. G. Underwood's letter to Dr. Ellinwood, Sept., 27 & Oct., 7, 1887; 「새문안 85년사」(새문안교회, 1973), 48-49. 새문안교회의 창립 교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자는 언더우드였으나 그들에게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한 자들은 언더우드가 입국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던 서상륜을 비롯한 한국인 전도인들이었다.

63) Samuel A. Moffett, 「위원입교인규도」,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895), pp. 13-14.

기도  
헌금  
찬송

마펏이 소개한 주일예배의 순서는 매우 간단하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으로부터 구체적인 주일 예배의 순서를 제정하지 못한 초기 장로교의 주일예배는 전도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노방전도형의 간단한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1907년 대부흥운동의 영향으로 더욱 강화된 설교중심의 사경회형의 비예전적 예배로 발전하였다.<sup>64)</sup> 먼저 이 예배순서가 간단하게 시작과 마지막 순서(축도)를 생략하거나 간단하게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도록 계획된 이유는 목사가 참석하지 않은 예배를 위하여 또는 가정 예배와 같이 작은 규모의 예배를 인도할 한국인들을 위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마펏의 간단한 예배 형식은 한국인들이 만주에서 드리던 예배 형식을 연상하게 한다. 이처럼 장로교의 예배가 비예전적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은 네비우스 선교정책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간단한 예배순서에 축도가 마지막 순서로 추가된 것은 1896년에 Horace G. Underwood가 연합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 준비한 한국 최초의 예배주보, 「부활주일예배」에서이다.<sup>65)</sup>

마펏이 소개한 주일예배 순서는 점차 묵도, 시편낭독(교독), 광고, 그리고 축도 순서들이 추가되면서 장로교회의 전형적인 순서로 자리를 잡아갔다. 이것은 1932년 10월 30일에 드러진 새문안장로교회의 주일예배 순서와 비교하면 분명해진다.<sup>66)</sup>

64) 「새문안교회 70년사」, (새문안교회, 1958), p. 21.

65) Horace G. Underwood, 「부활주일예배」(1896).

66) 윤경로, 「새문안교회 백년사, 1887-1987」, (서울:새문안교회역사편찬위원회, 1995), p. 239.

마펏의 예배(1895)      새문안장로교회의 주일예배(1932)

묵도

찬송                      찬송(일어서서)

기도                      기도(장로)

시편낭독

성경봉독                성경봉독

기도(회중)

찬송                      찬송(성가대)

성경강도                설교

기도                      기도

헌금                      헌금과 기도

광고

찬송                      찬송(송영)

축도

마펏의 예배 형식으로부터 발전한 새문안장로교회의 주일예배 순서는 한국 교회의 표준적인 주일예배가 되었다. 이 예배순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표준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예배는 묵도로 시작하여 축도로 끝난다. 예배의 시작 부분의 찬송은 일어나서 부른다. 기도는 장로나 평신도가 인도한다. 시편낭독(교독)이 기도 순서의 앞이나 후에 진행된다. 성경봉독과 설교 사이에 성가대가 찬양을 한다. 헌금과 광고 순서가 설교 후에 배치된다.

한국 장로교 최초의 예배모범은 1922년의 『조선 예수교 장로회 헌

법』에서 소개된다. 이 예배모범은 미국 남장로교의 *The Directory for the Worship of God with Optional Forms* (Richmond, VA: Presbyterian Committee of Publication, 1894)을 번역한 것으로 미국 북장로의 것과 매우 다르다. 그리고 1934년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나오는 예배모범은 1922년의 것을 개정한 것이다.<sup>67)</sup>

## B. 한국 장로교회 예배의 문제점

### 1. 지나친 말씀 중심의 예배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 있는 한국 장로교회들은 말씀을 강조하며 지식과 이성애 호소하여 예배를 드린다. 그러므로 예배를 하나의 영적 지식이나 성경 지식을 축적하는 시간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sup>68)</sup>

설교말씀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다른 예배 의식이나 순서의 의미가 약화되는 잘못이 있고, 감정과 의지를 억제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점도 있다. 즉 오늘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경청하는, 평가하는 인간 중심적인 예배로 전락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설교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

67) 김경진의 Th.D. 박사학위 논문 *The Formation of Presbyterian Worship in Korea: A Historical and Theological Study of Early Korean Presbyterian Worship, 1879-1934* (Boston University, 1999), 6쪽을 참조하라

68) 김연택, op.cit., p. 61.

영혼들이 회개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이다.

토마스 아담스<sup>69)</sup>는 설교는 또한 반드시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데 기여해야 한다. 즉 설교가 반드시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sup>70)</sup>

## 2. 성례전 예배의 부족

많은 개혁신앙의 대부분의 신조에서는 말씀의 선포 다음에는 성례전의 올바른 집행이 행해지는 곳이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다. 성례전이란 보이는 말씀이요, 구원의 언약을 확인해 주는 실로 소중한 것이다. 그러기에 개혁가들의 절대 수가 매주일의 성례전 거행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존엄성을 높이 인정하면서 성례전을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현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지혜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기에 이 예전을 통하여 공동체의 재 확인을 거듭할 것을 촉구했으며 매주 말씀의 예배와 병존할 것을 가르쳤다.<sup>71)</sup>

한국 장로교 역시 말씀과 성례가 초대교회의 예배의 전통이며, 개혁주의 교회 역시 중요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나 그 관심과 신학에 있어서는 많은 부족한 점들이 보이며, 성만찬은 예배의 부속물로 여기며, 단순히 기념적인 일로 간주하면서 설교에만 최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성례전 예배는 그 가치와 빈도에 있어 매우 빈약하다.

성례전은 일년에 봄, 가을 두 번만 치르면 그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으로

---

69)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오해하지 말라. 설교는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활동이 아니다. .... 예배가 설교를 듣는 것에 제한되어는 안된다. .... 예배는 더 넓은 범위를 갖고 있다. 기도, 찬양, 등이 있어야 한다.” - 토마스 아담스, Work. I, 103.

70) 김연택, op.cit., pp. 54-55.

71) 정장복, op.cit., pp. 19-20.

로 착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성례전 없는 예배가 신학적으로, 표면적으로 불완전한 예배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 하다.<sup>72)</sup>

우리는 보다 많은 성례전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에 있어서 설교와 성만찬을 조화함으로써 초대 사도시대의 전통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칼빈은 “성례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한다. 따라서 그는 우리 안에, 우리는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은사를 즐기게 된다”<sup>73)</sup>고 하였고 성례는 단순한 마음에서 오는 기념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교제를 체험할 수 있으며<sup>74)</sup>, 그러므로 “성찬식은 자주 가지는 것이 좋으며 매주 한번씩 가지는 것이 좋다”<sup>75)</sup>고 하였다.

여기에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쾰빙글리의 주장<sup>76)</sup>을 변할 수 없는 전통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말씀과 나만을 연결시켜나가는 개인주의적 신앙으로 오늘에 이르게 하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하면서 살 수 있는 행동적 신앙의 결여를 가져왔다. 그리스도와의 보이는 연합이 재현되는 성례전이 연중 2회로 밀려나고 단순히 기념행위로 가볍게 평가되는 현상이 바로 한국교회의 예배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그리스도 교회의 예배를 시작하셨다.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은

72) 정장복, “한국교회 예배 예전 형태의 백년”, 「기독교사상」 1984, p. 65.

73) Ins, IV.17.43.

74) 이종성, 「칼빈」,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p. 152.

75) Ins, IV.17.43.

76) 쾰빙글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와 성례전 중심의 예배를 분리시켰고 성례전 예배는 연중 4회로, 그리고 성만찬의 의미는 단순한 기념설로만 확정하였다.(정장복, 「예배의 신학」, p.20.)

친히 예비해 두신 고유한 방편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은총을 베푸신다.

우리는 이러한 성례전이 예배에서 갖는 참된 의미와 그 신학적 내용을 소홀히 한 채 단지 번거로움과 시간의 지체됨을 인하여서 아주 특별한 날에 기념비적인 행사로 그치려 하고 있다. 어쩌면 이것은 개혁교회 예배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면서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받는 방편인 것이다. 또한 성례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매우 중요한 방편이다. 성례전이 자주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들을 막고 있는 것이다.

### 3. 제 2의 미 서부 개척지의 예배 등장

서부 개척시대 인구의 대 이동과 더불어 활성화되었던 전도집회는 19세기 초반에 절정을 이루었다. 이때의 집회는 물론 말씀 중심이었고 예전적인 순서를 갖춘 예배를 보기는 매우 힘이 들었다. 이러한 교회의 변혁된 예배의 등장은 전통적인 예배의 틀과 권위에 묶여 있던 교회들에게 새로운 충격을 주었다.

21세기가 시작된 지금 이 시간 세계의 교회는 서서히 미국의 제2의 서부 개척기에 있었던 예배 변혁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교회들은 서서히 침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정착된 예배로 만족하지 못한 현대인들을 교회 안으로 흡수해야 하는 시대적인 과제를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다. 바로 여기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미국 서부 개척시대의 예배의 개발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최근의 빈야드 운동의 예배를 비롯하여 구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드러지는 열린예배와 텔레비전 복음전도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오늘의 예배 형태들이 바로 제2의 서부 개척시대에 발생했던 신 예배전통의 내용과 형태에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예배들은 한결같이 예배의 역사와 전통보다는 우선 눈앞에 보이는 회중들에게 생기에 찬 리듬을 형성시켜 주고 거기서 그들의 흥미를 고조시키려는 데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예배들은 한결같이 제임스 화이트의 설명대로 격렬한 음악이 앞서서 예배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곧 이어서 열정적인 설교를 강조하는 공통점들이 있다.<sup>77)</sup>

#### 4. 예배 복고 운동에 발 맞추어 나가는 예배행렬

교회는 성경과 역사와 전통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임이다. 한국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에서 예배는 새로운 개발보다는 오히려 전통을 벗어난 예배가 아닌 예배 복고운동이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된다. 특별히 제의문화권에서 살아온 제의민족으로서 제의적 행위를 찾는 심성이 오히려 발동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년 2회로 밀려난 성찬 성례전의 회복이 활발하게 되어 매월 1회 이상 거행하면서 예전적인 예배를 갖고 싶어하는 교회들이 등장할 것이다. 자신들의 취향대로 끌려가고 그곳만을 찾던 발길들을 반성하고, 진지하고 엄숙한 예전이 갖추어진 예배를 찾는 희귀의 본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sup>78)</sup>

---

77) 정장복, op.cit., pp. 376-377.

78) Ibid., p. 377.

## 5. 영상매체를 통한 예배의 등장

이미 이것은 한국교회 내에 깊이 들어와 있다. 인간이 인간의 얼굴을 쳐다보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룩하는 시대를 벗어나 인간 얼굴과 전자매체가 마주 앉아 자신의 할 일을 감당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를 많이 거친 교회들은 이미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긍정적인 면으로서는 메시지의 커뮤니케이션이 극대화 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예배의 신성미가 격하되고 뜨거운 영성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다.

이미 사이버교회가 형성되어 특정한 건물과 모임을 탈피한 온라인 속에서의 교제와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C. 개선방안

#### 1. 개혁주의 교회의 예배신학 정립

개혁주의 예배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죄로 인해 무능력한 인간과의 만남의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혁주의 예배는 복음에 근거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대로 실천하는 예배인 것이다.

개혁주의 예배의 신학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간 두가지의 다소 상반된 이미지가 있어 왔다. 하나는 성전에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며, 다른 하나는 하늘로 우뚝 솟은 높은 강단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단순히 보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처럼 개혁주의 예배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하심과 주권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개혁주의와 장로교 예배의 역사적 흐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그리고 이에 반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연약한 인간과의 만남인 것이다.

초기 제네바나 스코틀랜드의 개혁주의 예배가 언제나 예배의 시작 부분에서 ‘죄의 고백’이나 ‘참회의 시편’ 순서를 갖는 것을 볼 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자의 현 주소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인정하였다.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대한 관심은 개혁주의 예배의 깊은 뿌리로 작용하고 있다.

예배의 중심적인 자리로서 칼빈과 그 후예들의 주된 관심은 “말씀의 선포”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 선포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과의 만남과 교제로 언제나 상징화된다. 또한 기독교 예배의 모든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직접적인 표현이거나 간접적인 표현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때문에 말씀중심의 예배는 단순히 설교뿐 아니라 예배의 모든 순서가 말씀에 기초하여 표현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혁신학에 근거한 예배 신학의 가장 중심이며, 예배 신학적인 체계이다.<sup>79)</sup>

성경에 입각한 개혁주의 예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신학이 없는 감상주의적이고 빈약한 예배요, 냉랭하고 죽은 예배가 되어 버릴 것이다.”<sup>80)</sup>

---

79) 정일웅, “빈야드 운동과 빈야드 예배 문화의 비판적 성찰”, 「신학지남」, 1996, 여름호, p. 225.

말씀 중심의 예배는 성경강의나 성경지식의 습득의 과정이 아니라 성찬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설교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은혜계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함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중보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예배에서의 그리스도의 임재가 필요하며 이것은 곧 성만찬의 문제로 접근된다.

칼빈, 부처, 오리코람과디우스, 베자, 파렐, 나스 같은 개혁가들은 매주 1회마다 성찬이 집행되기를 갈망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는 회중들은 성찬에 즈음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찬을 받도록 요구되었다. 칼빈은 신앙을 가지고 떡과 포도주에 동참할 때 성령으로써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하신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영적임재설'이다. "성령으로 은혜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현실적인 임재" 가운데 예배의 본질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말씀과 관계없이 성만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할 수는 없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전하여지고, 들려지는 곳, 또한 성례전이 그리스도의 제정하신 대로 집행되는 곳"에 있는 것이다.

금세기 장로교 예배의 선두 학자인 올드 박사는 그의 역작인 Worship 「*That is Reformed According to Scripture*」에서 성경에 기초한 개혁주의 예배에 있어서의 다섯 가지 본질적 요소를 언급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하며, 둘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드러지는 예배이어야 하며, 셋째,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인 성화된 모습이 있어야 하며, 넷째, 예배를 통해 사랑이 충만히 넘치는

---

80) 정용섭, 「교회 갱신의 신학」,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pp. 28-29.

삶이 있어야 하며, 다섯째, 회중을 교육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sup>81)</sup>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생활의 스타일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미국 장로교 예배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은 아마도 에큐메니칼 운동의 여파와 그 동안 무미건조한 예배의식을 탈피해 예배에서의 새로운 미적인 감각과 신비함 그리고 드라마적인 예배의 연출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구로 인해 또 다시 종교개혁 이전의 예배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더 큰 변화를 위해 예배시 사용하는 언어와 예배, 시편가집, 찬송가집, 심지어 성경도 합당한 목적을 위해서 적절한 변화를 가져와야 했다. 이것은 미국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예배의 변화의 모습이다. 이러한 예배의 변화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설득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장로교를 비롯한 개혁교회들의 예배의 변화는 인간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한 인간적인 도구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고 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예배의 변화는 과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로써의 초기 개혁교회의 예배의 이해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소지를 낳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개혁주의에 입각한 예배신학에 대한 무관심과 교육부재가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좀더 개혁주의 입장에 서있는 예배의 정신을 이어받고 예배의 모범을 만들어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하여할 것이다.

---

81) 정장복, op.cit., p. 450.

## 2. 지·정·의의 균형잡힌 예배 표현

하나님 앞에서 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에 관한 모든 교리를 알고 예배드린다는 뜻이다. 또한 우리의 감정을 포함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의지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결단과 변화를 의미한다.<sup>82)</sup>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감정과 지성과 의지의 연합적인 영적 응답이어야 한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며, 중생의 체험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한 헌신과 경배이다. 예배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수반된 삶이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개신교의 예배의 말씀 중심을 우선적으로 주장하였다. 칼빈주의의 핵심도 1) 복음적 설교, 2) 성례전의 올바른 집행, 3) 교인 훈련이라는 것을 참된 교회의 표지로 세우면서 카톨릭 교회와 대적하였다.<sup>83)</sup>

설교가 예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은 설교의 사역이 예배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봉헌하려는 피조물의 응답적인 당연한 행위이다.

설교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결단, 기도와 찬양이 말씀선포와 동일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행하여져야 한다.<sup>84)</sup>

---

82) 김연택, op.cit., p. 61.

83) 정장복, op.cit., p. 18.

죄의 고백과 사함의 선언이 우리의 예배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도록 해야한다. 이것은 칼빈을 비롯한 개혁가들이 예배의 순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사용했던 순서이다. 공동체로서 함께 죄를 고백하는 순서와 그 죄가 사함받는 말씀(성경)의 선언이 없이 단순한 찬송과 기도는 값은 예배, 예전의 의미를 상실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목회기도가 오늘날 집례자에 의하여 계속되지 않고 평신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혼동을 가져다 줄 것이다.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주의 백성들과 사회와 민족과 세계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을 수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때문에 목회기도의 바른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배행위에 있어서 우리의 일련의 모든 행위들이 동등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한쪽에 치우친 예배가 아닌 즉, 지나친 말씀 중심의 예배, 혹은 감정에 치우친 찬양 중심의 예배, 제자화 훈련을 강조하는 교육 중심의 예배등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보다 더 균형잡힌 지·정·의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다.

### 3. 축제로서의 예배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균형을 가지고 드러져야 한다. 하나는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 엄숙함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죄에 대한 아픔과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하며, 다른 하나는 축제적 요소이다. 죄 용서에 대한 감격과 구원의 기쁨, 부활의 영광이 바로 그것이다.<sup>85)</sup> 때문에 우리는

---

84) 송제근, “예배의 성경적 근거와 현재적 적용” 「목회와 신학」 (서울:두란노출판사, 2002년 10월), p. 89.

85) 김만형, 「SS 혁신보고서」, (서울:에듀넥스트, 2001), p. 140.

예배를 기획할 때 구원과 부활, 죄의 용서로 인한 기쁨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배려하며, 그 즐거움을 예배를 통하여 맛보아야 할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지만, 이것은 억지로나, 강요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기쁘게 이루어지는 행위인 것이다.<sup>86)</sup>

한국 기독교는 복음이 들어오고 예배가 시작되던 초창기부터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제적 성격이 상당히 간과되어 왔다. 또한 회중들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주로 인식해서 인지 상당히 존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의식들로 인해 오히려 기독교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축제로서의 예배의 성격이 사라지고 말았다. <sup>87)</sup>이제껏 우리의 교회 현실은 지나친 죄의식과 구원에 대한 확신의 결여로 인하여 축제의 성격이 억제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의 위대한 구원의 경륜에 감사 드리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 감사와 기쁨의 상실이다. 때문에 예배에서 축제성을 회복하고 감격을 되살리는 노력이 예배 갱신 정신의 요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88)</sup>

#### 4.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올바른 예배 교육

예배는 예배집례자 혼자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예배집례자

---

86)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규장, 1998), pp. 61-63.

87) 정용섭, op.cit., p. 232.

88) Ibid., p. 71.



의 인도로 모든 예배자가 자신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의 순서가 잘 갖추어지고 예배의 계획이 아무리 잘 세워졌다고 할 지라도 예배자들이 그 예배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면 그 예배의 예배자들은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조화있고,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개개인에 대한 예배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목회자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예배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예전적 이해를 가지고 의미 있는 예배가 되도록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예배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들이 있다. 그것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sup>89)</sup>

첫째,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예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예배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한국의 샤아머니즘의 영향에 의해 예배의 대상에 대해 많은 혼란을 일으킨다. 구체적인 대상에 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

셋째, 예배에 임하는 예배자의 태도에 관한 교육이다. 예배는 전능하시며 경배와 존귀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

89) 박은규, op.cit., pp.183-198.

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배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 단정하지 못하고, 들떠 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개념도 희박하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설교가 예배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한다.

박은규 교수는 예배자의 바람직한 태도는 “경외감, 희생의 정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려는 태도, 복종의 정신, 내용있는 감정, 경축의 태도, 자기반성·자기교화·재헌신의 태도, 마음의 예배”라고 말하고 있다.

넷째, 은혜를 받는 수단에 관한 교육이다. 이것은 말씀과 성례전의 예배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하며,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른 예배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 준다.

## VI. 한국교회의 예배 전망과 예배 내용에 대한 제안

세계의 거의 모든 교회가 주일 낮 예배로서 주일의 모든 예배행사를 마감한다. 지속해 오던 주일 저녁의 예배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수요기도회나 철야기도회와 같은 것은 찾을 길이 없다. 빈틈없는 산업사회에서 시달린 육체가 따르기에 부담이 될 정도로 주일의 행사가 많은 곳에서 교인들이 부담감을 느끼면서 주일의 한 번의 예배로 스스로 만족하려고 한다.

21세기에 접어든 한국교회가 주일 저녁예배나 수요기도회와 같은 것을 버릴 것인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물론 한국민족 특유의 신앙과 충성심을 좀처럼 쉽게 식지 않으리라 본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인 예배와 현대 감각을 최대한 활용한 새로운 예배가 병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유일한 교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교회들이 주일 예배에서 새롭게 개발된 예배를 시도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다시 모이는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주일 낮이면 개신교의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오히려 오후나 저녁에 현대를 달리는 새로운 표현으로 드리는 예배를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어 줄 수 있다면 이것은 매우 훌륭한 조화를 이루는 예배의 현상이 될 것이다.

한 개인이 교회 전체의 예배 내용에 대한 모범을 제안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교단이나 소속 총회에서 결의하여 제안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필자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예배의 내용에 있어서 이것이 주의깊게 살펴져야 하겠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을 다루려 한다.

첫째, 예배자의 자세이다. 목회자 중심의 예배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중심으로 예배의 모습이 바뀌어 져야 할 것이다. 즉 “구경하는 예배”에서 “드리는 예배”로의 변화이다. 인간중심의 예배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로의 변화이다. 그리고 예배자의 직접적인 죄의 고백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있다.

둘째, 하나된 예배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집례자 중심의 예배에서는 개인적이며 비협조적인 예배의 형태를 갖게 되지만 회중중심의 예배에서는 전체가 유기적이며 협력하는 예배공동체의 모습이 된다.

셋째, 기복적이며 미신적인 예배의 형식으로 부터의 탈피이

다. 그동안 한국 개신교회에 만연되어 왔던 물질적 축복과 은사의 강조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의 예배로 변화가 되게 된다. 또한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는 여러 가지 미신적 요소들이 제거되면 예배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넷째,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자신이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서있고 조화있게 구성된 예배 순서를 통하여 예배자들은 자신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의미를 알고, 다음에 이어지는 순서의 의미까지 알게 되어 역동적인 예배, 활력있는 예배가 되게 한다.

다섯째, 경배와 참회와 말씀과 감사와 은혜와 파송으로 이어지는 질서있는 예배이다. 각 예배의 요소 안에서 충분히 그리고 바르게 위치한 예배순서를 발견케 해야한다. 기독교 예배는 경외심에서 출발하여 용서함을 받아 헌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여 아들을 통하여 성령의 영감을 간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sup>90)</sup>

여섯째, 말씀의 예배와 성만찬의 예배의 조화 있는 균형이다. 말씀의 예배와 성만찬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적 행위를 깨닫게 된다. 또한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된다.

일곱째, 성경봉독의 실행이다. 구약의 전체 말씀이거나 아니면 신약의 전체 말씀, 아닌 교회가 정한 특정한 본문말씀들을 순서대로 봉독함으로써 성경전체에 대한 봉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덟째, 성만찬 후의 구제 헌금이다. 초대교회나 개혁주의 교회들은

---

90) Thomas C. Oden, 『목회신학』, 이기춘 역,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3), p. 160.

성만찬이 이루어질 때 구제의 헌금을 드리곤 하였다. 오늘날 교회 만을 위한 헌금이 아닌 이웃을 향한 구제의 헌금도 보다 많이 드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집례자나 예배 하는 공동체 모두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든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VII.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현대교회에 이르는 여러 가지 예배의 형식들을 살펴보았다. 때로는 너무나 형식적이어서 예배자들이 알 수 없는 예배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너무 비예전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예배여서 예배자들로 하여금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게 예배가 진행되었다.

예배의 올바른 자세는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에 달려있다. 한국개신교회의 예배는 예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그 이유는 예배 집례자중심의 예배운영이 그것이며, 설교중심적 예배와 축복과 은사의 강조, 그리고 무미 건조한 예배의 내용이 그것이다.

한국의 개신교회가 선교 100주년을 넘어서 200주년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지금의 현실에 교회의 내적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예배의 불균형과 부조화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새로운 예배의 정신과 내용을 성경적이고 개혁주의 정신에 맞는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초대교회로 부터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예배순서 중 공통적인 것은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의 예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 교회의 예배도 이 두기둥을 중심으로 한 예배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 개신교회 대부분은(루터교회 제외) “말씀의 예전”이 강조되고 “성만찬 예전”이 삭제된 예배를 드

리고 있다.

특히 한국의 개신교회는 신도들이 지닌 훌륭한 기도생활, 감사의 생활, 열정적인 봉사와 헌신<sup>91)</sup>에도 불구하고 성만찬에 소극적이었던 선교사들의 예배형태와 한국의 샤마니즘적인 재래 문화속에서 생겨난 설교중심<sup>92)</sup>, 축복강조<sup>93)</sup>의 예배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자연히 성만찬이 포함된 예배의 형태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설교가 중심이된 예배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제는 목회자 혼자만의 예배, 설교중심의 예배였던 한국 개신교회의 예배가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예배, 함께 하는 예배로 자리를 잡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한국 개신교회는 앞으로 예배를 위한 예배순서와 형식에 관하여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보완과 수정을 거쳐 한국개신교 실정에 맞는 예배의 정착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순서를 균형과 조화있도록 구성해나가고 있음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새롭게 정립되어 가고 있는 예배순서와 형식이 한국 개신교회의 외적 성장 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에도 많은 기여를 할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는 예배집례자 혼자만이 모두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보다 잘 드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예배의 준비와 계획하는 일을 위해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

91) 박은규, op.cit., pp. 22-26.

92) Ibid., p.36.

93) Ibid., p.31.

앞으로의 한국개신교회가 지향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받는 예배에서 드리는 예배로의 변화라고 하겠다. 그동안 한국의 교회는 은혜 받기만을 원해왔다. 그러기에 예배에 대한 경외감이 없었고, 개인중심적인 예배의 참여가 되므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와 인간과 인간과의 조화있는 관계가 무시되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며 이웃에게 나누는 예배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 참고도서

### 1. 국내도서

- 김동수. 「예배학 개론」.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67.
- 김동수. 「예배학 개론」.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67.
- 김득룡. 「현대교회 예배학 신강」. 서울:총신대학교 출판부, 1996.
- 김만형. 「SS 혁신보고서」. 서울:에듀넥스트, 2001.
- 김소영. 「예배와 생활」.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4.
- 김소영. 「현대 예배학」. 서울:기독서회, 1993.
- 김수학. 「주교 예배학」.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0.
- 김연택. 「건강한 교회와 예배」. 서울:프리젠티, 2000.
- 류제창. 「개혁주의 예배학」. 서울:성광문화사, 1985.
- 문희석. 「하나님의 구속역사」. 서울:보이스사, 1973.
-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 오덕교. 「장로교회사」. 수원: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5.
- 윤경로. 「새문안교회 백년사, 1887-1987」. 서울:새문안교회역사편찬위원회, 1995.
- 이병렬. 「다트 이스라엘」. 서울:교민사, 1982.
-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규장, 1998.
- 이종기. 「교회사」. 서울:세종문화사, 1979.
- 이종성. 「칼빈」.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 정승훈. 「말씀과 예전」.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8.

- 정용섭. 「교회갱신의 신학」.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 정인찬 편. 「성서대백과 5권」. 서울:기독지혜사, 1980.
-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종로서적, 1985.
- \_\_\_\_\_. 「예배의 신학」. 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9.

## 2. 번역서

- Abba. R.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제」. 허경삼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1.
- Franklin M. Segler. 「예배학 원론」. 정진황 역. 서울:요단출판사, 1973.
- John.M. 「참된 예배」. 한화룡 역. 서울:두란노, 1992.
- Robert G. Rayburn. 「예배학」. 김달생. 강귀봉 공역. 서울:성광문화사, 1992.
- Samuel A. Moffett, 「위원입교인규도」.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895.
- Thomas C. Oden. 「목회신학」. 이기춘 역.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3.
- Wilhelm Niesel.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1.
- William. D. Maxwell. 「예배의 발전과 그 형태」. 정장복 역. 서울:쿠파출판사, 1996.

### 3. 원서

C.V.Wedgwood. 「The king's War」. New York:Macmillan. 1959

Thomson, Bar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Philadelphia:Fortress Press, 1980.

White.James F. 「Protestant worship:traditions in transitation」.  
Westminster, 1989

Park chong ken. 「A Biblical study of christion worship」, 1986.

### 4. 정기 간행물 및 인터넷 검색

김병원.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본질적 의미” 「월간고신」,  
1990. 11월.

은준관. “예배의 본질과 형식에 대한 반성”. 「기독교사상」, 1972.  
31권 9호.

송제근. “예배의 성경적 근거와 현재적 적용” 「목회와 신학」, 서울:두  
란노출판사. 2002. 10월.

[http://godislove.net/wwwb/data/misupart06/장로교의\\_예배의식.hwp](http://godislove.net/wwwb/data/misupart06/장로교의_예배의식.hwp)